

LG화학, 2010년 매출 13조원 목표

전자소재 30%로 확대하고 석유화학 47%로 축소 ... 2/4분기 이익 급감

LG화학이 2010년 매출 13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사업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보전자소재를 전체 매출의 17%에서 30%로 끌어올리고, 석유화학은 56%에서 47% 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반석 LG화학 사장은 7월13일 오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2006년 2/4분기 실적 기업설명회를 갖고 <차별화된 소재와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 기업> 비전과 <고객가치 창조, 강한 실행력, 상호존중>의 3가지 공유가치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반석 사장은 또 고객의 문제 해결과 성공을 도와주는 동반자의 의미를 담고있는 솔루션 파트너를 새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0년 매출 13조원 달성을 위해 기존 사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정보전자소재 분야 집중 육성, 성과지향적 연구개발(R&D)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석유화학사업은 수직 계열화 강화를 통한 수익기반 확보 등에 주력키로 하고, 중국 NCC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원료 확보, 비효율 라인 합리화 및 한계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재 사업에서는 전자재 및 기능소재 부문을 중심으로 고기능 제품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아래 토털 인테리어 통합 브랜드 <Z:IN>을 키워 현재 1조2000억원 수준의 친환경·프리미엄 제품군 매출을 2010년에는 1조9000억원대로 늘리기로 했다.

미래 승부사업으로 집중 육성중인 정보전자소재 사업은 디스플레이 소재인 편광판, PDP필터, 감광재 등에서 고객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 제품을 양산하고, 고부가 제품 개발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2006년 2/4분기에 매출 2조2725억원에 영업이익 480억원, 순이익 450억원 등의 실적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1/4분기에 비해 6.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6.8%, 순이익은 34.0% 감소했다.

또 2005년 2/4분기에 비해서는 매출이 26.6%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이 43.9%, 순이익은 48.6% 줄어든 것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여수공장 정비에 따른 가동률 하락, 고유가 및 NCC기업 정가보수에 따른 원재료가 강세 등으로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악화가 지속된 것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전망에 대해 “하반기에도 고유가 지속 및 환율하락 등 경영환경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석유화학 부문은 추가적인 악화보다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며,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인 원가절감 활동 및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의 사업구조 전환 등을 통해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18>